

# 광주·전남 기름값 4주 연속 하락세

## 공급 과잉 국제유가 약세 영향

### 당분간 하락 추세 이어갈 듯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4주 연속 기름값 하락세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세계 석유시장이 공급 과잉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과 ‘페트로넷’을 분석한 결과 12월 5주차(12월 28일~1월 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ell$  당 1729.9원으로 전주 대비 5.4원 하락했다.

지역별로 서울은 전주보다 6.5원 하락한 1789.6원을 기록해 가장 판매가가 높았고, 대구는 1698.8원으로 판매가가 가장 낮았다.

광주와 전남 유가는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광주 소재 주유소들의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

가는 지난 3일 기준  $\ell$  당 1706.77원으로 일주일 전(1716.57원) 대비 9.8원 내렸다. 광주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6월 11일(1612.07원) 이후 하반기 중 고환을 기조가 지속되면서 6개월 이상 상승을 거듭했다. 이후 지난달 4일 1733.86원까지 치솟은 이후 현재까지 4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지난 4주 동안 광주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용 경유 평균 가격은  $\ell$  당 1650.16원에서 1604.81원으로 45.36원 낮아졌다.

전남 유가 역시 광주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 전남지역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 3일 기준  $\ell$  당 1739.42원으로 전주(1743.84원)보다 4.42원 하락했다. 전남 보통휘발유 판매가는 지난 6월 12일(1635.10원)부터 12월 8일(1751.96원)까지 상승한 뒤 4주 연속 하락세다. 전남 자동차용 경유는 지난 4주간 1669.15원에서 1645.60원으로 23.55원 내렸다.

보통휘발유 판매가를 상표별로 보면 12월 5주

차 기준 전국 주유소 중 SK에너지가  $\ell$  당 1737.7원으로 가장 높았고, GS칼텍스(1734.2원), HD현대오일뱅크(1730.7원) 등이 뒤를 이었다. 판매가가 가장 낮은 곳은 알뜰주유소(1708.2원)였다.

올해 세계 석유 시장 공급량이 많을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하면서 국내 유가는 4주 연속 하락하고 있지만, 국제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하락 폭을 좁혔다.

당분간 광주·전남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국내 유가 하락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적으로 국제 유가 변동에 따라 국내 유가 역시 2~3주 가량 뒤부터 상승·하락 추세가 반영되는 데, 국제 유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두바이유는 지난 2일 기준 배럴 당 60.32달러로 전주 대비 1.88달러 하락했고, 서부텍사스산원유(+0.58달러)와 브렌트유(+0.11달러)는 일시적으로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라스베이거스 밝히는 삼성전자 ‘CES 2026’ 옥외광고 삼성전자가 6~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26’에 앞서 리조트월드 호텔에 옥외광고를 내걸었다. 삼성전자 광고가 나오고 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리조트월드 호텔 외관. <삼성전자 제공>

## 쿠팡 개인정보유출 분쟁조정신청 2600명

### 조정위 조정절차 개시 보정절차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싸고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신청이 잇따르면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도 조정절차 개시를 위한 보정절차에 돌입했다.

4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기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약 2600명 규모다.

이 가운데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집단 분쟁조정 신청은 2건으로 약 1700명이 참여했으며, 개인이 직접 신청한 건은 약 870건으로 파악됐다.

개인 신청의 경우 별도의 개시 절차가 필요 없지만, 집단 분쟁조정은 절차 개시 공고가 필요하다.

아직 개시 공고는 올라가지 않은 상태로 신청 서류의 미비 여부 등을 확인하는 보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보정 절차 등을 마치고 집단 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공고하면, 공고 종료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절차가 일시 정지돼 최종 배상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과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반면 일부라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조정은 성립되지 않으며, 집단 분쟁조정 당사자들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쿠팡측은 분쟁조정과는 별도로, 쿠팡 와우·일반·탈퇴 고객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3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 규모의 보상을 순차 지급할 방침이지만, 쿠팡만을 사용하는 고객에겐 사실상 5000원 지원에 불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쿠팡이 자체 보상을 마련한 것을 고려는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조정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위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국내 주식 외국인 비중 5년 8개월 만에 최대

### 채권도 8조8천억원 순투자

국제금융센터는 4일 “지난달 말 국내 증시 전체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보유 비중이 5년 8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신설위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 들어 외국인 순매수가 재개되면서 전체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보유 비중이 2020년 4월 이후 최대인 32.9%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을 통해 발표한 외국인 비중은 2020년 4월 말 기준 31.5%, 지난해 11월 말 기준 29.6%였다. 12월 말 수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해 12월 중 전기·전자 업종 순매수 규모가 4조5000억원에 달해 외국인 전체 순매수 규모(3조5000억원)를 웃돌았다고 전했다.

그중 SK하이닉스가 2조2000억원, 삼성전자가 1조4000억원을 각각 차지했다.

SK하이닉스의 외국인 비중은 지난해 11월 말 53.2%에서 12월 말 53.8%로 확대됐으며, 삼성전자도 52.2%에서 52.3%로 높아졌다.

외국인은 지난해 12월 국내 주식뿐 아니라 채권도 8조8000억원 순투자를 기록했다.

외국인 채권 보유 잔액은 중·단기물을 중심으로 11월 말 329조5000억원에서 12월 말 339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연간 누적으로는 주식시장에서 6조7000억원 순매도, 채권시장에서 64조4000억원 순투자를 한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국제금융센터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외 투자은행들의 한국 주식 평가가 매우 긍정적”이라며 “자본시장 개혁 정책 등이 추가 유입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인공지능(AI) 버블 경계감 등으로 외국인 주식 자금 흐름이 높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중진공, 창업·진흥기금 11조5천억원 확정

### 성장·수출·AI 집중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새해 중소벤처기업창업과 진흥기금 규모를 11조5129억원으로 확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 혁신과 성장 촉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정책자금은 4조4313억원 규모로 직접융자 4조643억원과 이차보전 3670억원으로 나뉘어 공급한다.

특히 혁신창업사업화자금(1조6058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3164억원), 신성장기반자금(1조811억원) 등 혁신성장·시설투자·제조 디지털화·해외 진출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투자요소를 결합한 금융도 확대된다. 투자조건부 융자, 성장공유형 대출, 스케일업금융 등을 통해 민간자금 유입을 유도하고 융망 중소기업에는 유도화보증(P-CBO) 방식으로 대규모 자금을 공급해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을 돕는다.

수출 분야에서는 수출바우처 예산을 1502억원으로 확대하고, 관세 대응 서비스를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온라인 수출 공동물류 지원 예산도 173억원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지역과 인재 기반도 강화한다.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490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도 595억원으로 늘린다.

중진공 연수원 내 AI 특화 연수를 운영하고 산학협력 프로젝트 학과인 계약학과로 AI 특화 계약학과 10개를 신설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식비 다음이 사교육비…다자녀 가구 월 61만원 쓴다

### 10년 새 총액 60% 증가…초등 급증

두 자녀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가 월 60만원을 넘으며 식비 다음 큰 소비 항목으로 자리 잡았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사교육비 총액은 최근 10년간 60% 이상 늘었고, 특히 초등학생 사교육이 증가세를 주도했다.

4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미혼 자녀를 둔 이상 둔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61만 1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485만 8000원)의 12.6%로 외식비(72만원), 장보기 비용(68만 8000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필수 지출로 분류되는 주거·난방비(43만 7000원), 의류·신발(19만 5000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월평균 소비지출 중 사교육비 비중은 해마다 확

대되고 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9년 11.5%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9.2%까지 낮아졌으나 이후 반등해 2021년 11.2%, 2022년 12.5%, 2023년 12.6%, 2024년 12.8%로 상승했다. 지난해 1분기(13.0%)와 2분기(13.5%)에는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연간 기준으로도 최고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사교육비 지출 규모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두 자녀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9년 42만 7000원에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34만원으로 줄었다가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며 5년 만에 2배 가까이 확대됐다. 분기별로 2024년 3분기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가구 단위 부담 증가는 국가 전체 사교육비 증가와도 맞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KOSIS에 따르면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은 29

조 1919억원으로 2014년(18조 2297억원) 대비 60.1% 증가했다. 사교육비 총액은 2015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6년 이후 다시 늘어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4년 연속 늘었다.

특히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초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13조 2256억원으로 2014년(7조 5949억원)보다 74.1% 늘었다. 같은 기간 중학교는 40.7%, 고등학교는 60.5% 증가했다. 초등 사교육비 총액은 중학교(7조 8338억원)와 고등학교(8조 1324억원)의 1.6~1.7배에 달한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초등학교 단계에서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초등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87.7%로, 중학생(78.0%)과 고등학생(67.3%)을 웃돌았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렛츠캠프 캐릭터 팝업스토어’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스누피 등 유명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들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22일까지 4층 행사장에서 ‘렛츠캠프 캐릭터 팝업스토어’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캠핑에 온 것 같은 분위기에서 스누피, 산리오, 주토피아의 다양한 캐릭터 등을 활용한 파우치, 키링, 인형, 슬리퍼 등 굿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더불어 캠핑 컨셉의 포토존도 마련했다. 행사 기간 동안 구매 감사품 및 SNS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모션도 준비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대한민국 슈퍼리치들이 꼽은 올해 키워드는 ‘K.O.R.E.A’

2026년 병오년을 맞아 대한민국 ‘슈퍼리치’들이 꼽은 키워드는 ‘K.O.R.E.A’였다.

4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최근 자산 30억원 이상 ‘SNI’ 고객 401명을 대상으로 “2026년 주식 시장 전망 및 투자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026년에는 국내 주식시장의 강력한 부활과 함께 공격적인 자산 증식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와 함께 투자의 핵심 키워드로 ‘K.O.R.E.A.’를 선택했다.

SNI는 예탁 금융자산 30억원 이상인 초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삼성증권 자산서비스 브랜드다.

2026년 투자의 핵심 키워드인 ‘K.O.R.E.A.’는 ▲한국 주식(K-stock) 선호 ▲한국 및 코스닥 시장의 성과 상회(Outperform) ▲주식 자산으로의 리밸런싱(Rebalancing) ▲성장지수펀드(ETF) 활용 ▲AI 주도 시장의 앞 글자를 딴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초고액 자산가의 절반 가까이(45.9%)는 2026년 말 기준으로 코스피가 4500포인트를 돌파할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이들 중 32.1%는 ‘오전표’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기

K 한국 주식 선호

O 한국 및 코스닥 시장의 성과 상회

R 주식 자산으로의 리밸런싱

E 성장지수펀드(ETF) 활용

A AI 주도 시장

대했다.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았으며 응답자의 59.6%가 코스닥 지수 1000선 돌파를 예상했다. 이 가운데 29.3%는 1100선마저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중 어느 시장의 상승률이 더 높을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코스닥’을 택한 응답자가 69%로 코스피(31%)를 고른 응답자의 두배가 넘었다.

또 주식형 자산 확대 시 유망 국가를 묻는 말에

‘한국’을 꼽은 응답자가 54.3%로 미국(32.9%)을 크게 앞섰다.

초고액 자산가들은 올해 적정 포트폴리오 비중을 묻는 말에는 ‘주식에 80% 이상 투자하겠다’는 응답이 57.9%에 달했고, 실제로 주식형 자산 확대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67.1%가 ‘그렇다’고 답했다.

관심 섹터로는 여전히 AI가 꼽혔다.

응답자의 48.1%는 2026년 가장 중요한 화두로 ‘AI 산업의 성장세 지속’을 꼽았다. 투자 유망 업종 역시 AI·반도체(31.8%)가 1위였고, 로봇(18.0%), 제약·바이오·헬스케어(14.8%), 금융 등 고배당주(12.3%), 조선·방산·원자력(10.4%) 등이 뒤를 이었다.

투자방식에서는 개별 종목 발굴의 어려움 때문에 ETF 및 상장지수채권(ETN)을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49.1%로 가장 많았다. ‘직접 주식매수’라고 밝힌 응답은 37.9%였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